전주매일 CMYK

전북금연지원센터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용동 344-2) 원광대학교병원 외래1관 1층
TEL | 063) 859-2400 ~ 2410 FAX | 063) 859-2414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17년 9월 6일 수요일 (음 7월 16일) 제1885호 대표전화(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 경 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서해안 도서개발 청사진 제시

도, 연차적 추진 중
군산 · 고창 · 부안 등
3개 시군 지역주민과
사업 계획 등 논의

전북도는 5일 새만금 33센터에서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주민설명회에는 3개 시군(군산, 고창, 부안) 지역주민과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계획과 환경영향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은 2018년부터 2027년까지 국비 752억원 등 총사업비 879억원을 투자해 군산 선유도 내부연결도로, 고창 내죽도 방파제, 부안 위도 해안탐방로 등 58개사업을 추진하려는 사업이다.

이번에 발굴된 58개 사업들은 도서주민들의 생활불편사항과 소득증대에 필요한 사업들 중 주민제안을 받아 행안부 국비지원 한도내 우선순위를 정해 수립된 사업들이다.

주민설명회는 사업내용, 환경영향에 대한 설명과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사업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꾀하는 법적절차다.

도서종합개발계획은 10인이상 거주하는 3시군 23개도서에 대해 198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10년단위 중·장기 계획이며 이번 4차계획(2018년~2027년)은 시설투자와 함께 주민 소득기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도서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에 목표를 두고 추진되고 있다.

1차 계획은 (1988~1997) 110억원, 2차 계획(1998~2007) 328억원, 3차 계획(2008-2017) 600억원이다.

전북도 김천환 건설교통국장은 "전북도는 도서개발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민선 6기 이후 도서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시설투자와 주민소득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도 관계자는 "현재 행안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협의가 끝난후 도서개발위원회 심의와 행정안전부의 승인 이후 2018년부터 사업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전주시는 5일 인천공항 영국항공기내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마누엘 알버레즈 영국항공 한국지사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영국항공 전주홍보 론칭 기념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영국항공 통해 세계 200개 도시에 전주 알린다

시, 9월 한달동안 전 노선서 관광자원 소개 홍보영상 상영

전주의 문화와 역사, 관광자원이 세계 75개국 200개 도시에 취항하는 영국항공을 통해 전 세계에 소개된다.

전주시는 9월 한달동안 영국항공(British Airways) 전 노선에서 전주시의 문화, 역사, 관광자원이 소개된 홍보영상이 상영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시와 영국항공, 전주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가 지난 5월 상호홍보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따른 것으로, 영국항공 44년 역사상 특정 도시에 대한 홍보 프로모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전주시가 처음이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문화특별시 지정을 추진하는 전주시의 우수한 문화와 역사관광자원 등이 세계인들에게 소개돼 글로벌 문화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국항공은 이번 전주 홍보 프로모션 프로젝트를 통해 자사 기내에서 '동아시아 문화중심도시'를 주제로 한 전주 홍보 영상과 전주국제영화제에 출품된 한국 단편영화 5편을 상영할 예정이다.

여기에 인천과 런던을 오가는 영국항공 노선에는 전주시 홍복 책자가 비치된다.

시는 이날 인천공항 영국항공기내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마누엘 알버레즈 영국항공 한국지사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영국항공 전주홍보 론칭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승수 시장은 마누엘 알버레즈 영국항공 한국지사장에게 전주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했다.

마누엘 알버레즈 영국항공 한국지사장은 "한국에서 가장 즐겨먹는 음식이 비빔밥이며, 영국항공 기내식으로 이미 비빔밥을 서비스할 정도로 한국에 대한 애정이 많다"며 "명예 전주시민으로서 전주를 세계에 홍보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국내 항공이 아닌 영국항공이 전세계 노선에 전주와 전주국제영화제를 홍보하는 것은 그 자체가 전주는 이미 세계적인 도시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 전주가 글로벌 도시로 가는 속도가 한층 가속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호원대, 정부재정지원 제한 해제

강희성 총장 "학사구조 개편 · 항생 지원 등서 성과 거둬"

교육부가 대학구조개혁평가 후속 조치로 시행한 '맞춤형 컨설팅 2차연도 이행점검'에서 전북 호원대학교가 그룹 1(모든 영역 통과) 평가로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에서 해제됐다.

강희성 호원대 총장(사진)은 5일 "이번 점검 대상 67개 대학 가운데 우수한 평가를 받아 재정지원 제한이 완전 해제된 42개 대학에 호원대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강 총장에 따르면 호원대는 내년부터 정부재정지원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신·편입생들의 국가장학금Ⅰ·Ⅱ유형, 학자금대출이 모두 허용된다.

이에 따라 호원대는 2018학년도부터 안정적인 대학운영이 가능하게 됐다.

호원대는 그간 ▲교육부 컨설팅 수행 ▲미래지향적 학사구조개편 ▲학생 중심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CK) 추진 ▲대학 자체 특성화 사업(13개 학부(과), 7개 사업단) 등을 추진했다.

특히 5개 단과대학 27개 학부(과) 39개 전공의 학사구조를 4개 단과대학 20개 학부(과) 31개 전공으로 교육시스템을 재편해 사회 및 산업 수요에 맞췄다.

강 총장은 "호원대만의 특성화와 강점 등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대학체질을 개선해 경쟁력을 높이고자 노력을 다했다"면서 "어려운 환경속에서 대학의 혁신을 위한 모든 구성원의 헌신적 노력에 감사하다. 호원대는 앞으로 지역을 빛내는 대학으로 더욱 발전해 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립한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에 따른 체계적인 대학운영으로 우수인재를 양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호원대는 2015년과 2016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돼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군산=장 현 기자

헌법개정 대토론회 7일 전북도청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전북도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가 7일, 오후 2시에 전북도청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국민대토론회는 개헌에 관한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기 위해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권역별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총 11회에 걸쳐 개최하는 것으로 부산, 광주, 대구에 이어 네 번째로 전북도청에서 전라북도 지역 주민의 개헌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게 된다.

이번 국민대토론회에는 김관영 개헌특위 간사가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하고 김성태 개헌특위 위원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전북도에서 추천한 기본권 및 총강, 지방분권, 정부형태, 정당·선거, 사법부 등 관련 주제의 전문가 8명의 토론이 있은 후, 자유토론과 시민 질의응답이 예정되어있다.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이번 국민대토론회에서 제기된 지역 전문가와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하는 개헌안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유성엽 의원 "동학농민혁명 정신 헌법에 포함해야"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헌법전문 포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5일 국회에서 열렸다.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국민의당, 정읍·고창·사진)의 소개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는 '동학농민혁명정신 헌법전문 포함 추진위원회'가 함께 참여해 진행됐다.

유성엽 위원장과 추진위원회 위원들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역정을 볼 때 가장 앞자리를 차지해야 하는 정신이 동학농민혁명"이라며, "이번 개헌에서 반드시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견문에는 ▲ 정부와 국회는 개헌시 자유와 평등, 자주정신, 그리고 우리 사회의 지향점인 사람이 사람답게 대접받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인간 삶의 기본임을 천명한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이 대한민국 헌법 전문의 맨 앞에 반드시 포함될 것 ▲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이 대한민국 헌법 전문의 맨 앞에 반드시 포함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범국민 서명운동과 함께 국회청원운동을 벌일 것 등이 담겼다.

/김진성 기자

매일 INDEX

3면 - 행정구역 조정안 마련

5면 - 부안여상, 일반고로 전환